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5.11.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동해 ‘불타는 얼음’ 시추 꿈 접는다(‘15.11.26. 서울경제)

1. 기사내용

- 동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(GH) 시추시 **해저지형이 붕괴·폭발**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에 따라 **관련 사업 중단**
 - GH 시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의 **해저광물 자원 개발계획도 손질이 불가피**
 - 내년도 예산도 배정하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산업통상자원부와 GH사업단은 당초 ‘15.6월 실시하기로 한 GH 시험생산 시기를 ‘17년 이후 설정하기로 결정하고, 시험생산을 위한 GH 생산기술 연구 등에 주력하기로 함

* 연기 사유 : GH 시험생산 시뮬레이션 결과, **생산량 확보 미흡**
⇒ R&D 및 신규 시추후보지 추가 발굴 추진

- 동 방침은 지난 ‘14.9월 수립한 ‘해저광물기본계획’ 등에 이미 반영
 - * 정부는 「해저광물자원개발법」에 따라 해저광물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중
- 내년도 지질자원연구원은 **44억원**(미래부 출연예산)을 동 사업에 배정할 예정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장 제경희 (044-203-5140)
박상철 사무관 (044-203-5142)